

사회안정을 위한 종교인 심포지엄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는 8월 28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안정을 위한 정신문화와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정각스님, 설봉근 부산 시교육감, 방영식 기독교 공동대표 등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종교인 3백여명 참여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정각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종교인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종교인들이 스스로의 책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안정을 위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라는 김형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태 전 신라대 총장의 사회로 이경희 가야대학교 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10월 3~5일 '불교문화대제' 개최

"부처님 나라로 초대합니다"

선황대본산 범어사(주지 성오)가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의 구심체로 거듭난다.

범어사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불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축제인 '범어사 불교문화대제'를 열고 불교문화와 불교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선보인다. 범어사가 일반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초가를 산사의 정취에 취해 커피와 향을 곁들여 불교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범어사 문화대제는 부산시의 금정구청의 후원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첫 문화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범어사 불교 문화대제는 6일부터 열리는 금정예술제에 앞서 열려, 금정구민들의 축제였던 금정예술제의

축제 분위기를 부산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처님 나라로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범어사 불교문화대제의 가장 큰 특징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불교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초가을의 산사정취와 함께
영상재·다도 등 다양한 행사
30명엔 템플스테이 기회도

있는 다양한 전시, 공연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3일 개막식에서 선보이게 될 선무도 시범을 비롯한 영상재 공연, 불교합창단, 무용단, 가야금 병창 등을 비롯 전통등 만들기, 달마조사상 그

리기, 탁본 체험, 페이스 페인팅, 다도시연,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비디오 상영 등도 펼쳐진다. 깨달음의 세계를 사진작업으로 시각화하고 있는 관조스님 초대사진전과 금정산 사진 전시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특히 3일 동안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30명이라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어사는 범어사 불교문화대제 기간동안 진행될 체험 프로그램 중 관조스님 초청 사진전, 탁본 체험과 대중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상설화할 계획이다.

범어사 포교국장 지중스님은 "이번 금정산 불교문화대제는 문화를 통한 포교와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한 범어사의 변화를 이끄는 물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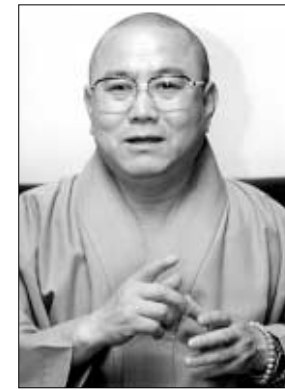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mhicheon@buddhapia.com

U대회 북한선수단 응원을 마치고...

특/별 기/고

범타 스님

은혜사 주지
통일U대회 시민연대 상임대표



2003년 대구세계U대회가 막을 내렸다. U대회 사상 최대 174개국 1만 여명의 임원·선수단·보도진들이 모인 세계 젊은이들의 우정과 화합의 제전이였다.

필자는 평불협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운동 단체 90여개 2만 여명으로 '아리랑 응원단'을 조직해 주로 조선 선수들의 출전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8월 21일과 23일에는 '조선·덴마크', '조선·네덜란드' 배구경기에 참석해 '조선 여대생 응원단'과 함께 응원했다.

8월 24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조선여자축구구단과 프랑스의 경기기 시작했다. 웬일인가? 3분여 만에 조선에서 먼저 한 골을 넣었다. 와와! 나도 모르게 일어서 박수를 쳤다. 갑갑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골! 또 한골! 3 : 0. 아니 전반전이 9:0으로 끝났다. 후반전에는 조

선선수들의 가벼운 연습시간이었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선수 잘 한다" 하늘이 진동한다. 관세 장벽을 넘어 온 대형 한 반도기를 조선응원단이 받아 펼칠 때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불 위로 흘렀다.

그러나 8월 26일 조선과 미국의 배구경기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전날 있었던 반북 단체들과 북한 기자단과의 충돌사건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 우위로 끝난 경기 후, 패배한 조선 선수들에게 열렬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우리는 이 자리에 반미나 미제타도 구호를 외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요. 순수하게 '세계 대학생 젊은이 축제'를 함께 빛내기 위함"이라고 대표연설을 했다.

8월 21일과 23일에는 '조선·덴마크', '조선·네덜란드' 배구경기에 참석해 '조선 여대생 응원단'과 함께 응원했다.

8월 24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조선여자축구구단과 프랑스의 경기기 시작했다. 웬일인가? 3분여 만에 조선에서 먼저 한 골을 넣었다. 와와! 나도 모르게 일어서 박수를 쳤다. 갑갑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골! 또 한골! 3 : 0. 아니 전반전이 9:0으로 끝났다. 후반전에는 조

이번 U대회는 경주의 세계 문화 엑스포와 함께 열려 정말 흥분하고 멋진 축제가 되었다. 남북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꿈(Dream for Unity)만이 아니라 모든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미래로 가고 있음을 현장에서 대구 U대회가 보여 주었다.

"찬시로 고대신라사회의 패러다임 정리 불교사·역사·설화 아우른 유사적 서술"

인각사, 경북대서 삼국유사 학술대회

해방 후 처음으로 삼국유사 영인본을 발간하는 등 민족의 스승 일연성사의 현창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스님)가 삼국유사 학술대회를 지난 3일 경북대서 개최했다.

일연삼국유사 문화제의 일환으로 '삼국유사의 체제와 성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찬시'를 삼국유사의 체제와 연관지는 연구결과가 처

음으로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고운기 교수는 '삼국유사의 찬시와 그 체제상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찬시가 이야기와 일체적으로 한데 어우러져 서사와 서정의 절묘한 조합이라는 고리역할"이라며 "삼국유사만의 독특한 기술체제는 향가로 구현된 심미적 세계를 찬시를 통해 이어받아 신라로 대표되는 고대사회의 패러다임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김상현교수는 '삼국유사의 체제와 판목 구성' 주제발표에서 "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체제상 특징은 중국 승전류를 참고하면서도 모방하지 않고, 일반 역사와 불교사를 포함할 뿐 아니라 역사와 설화를 아우른 유사적 서술"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이강대 교수는 '한국고대사를 위한 삼국유사의 독법' 주제발표에서 "삼국유사의 양력과 기이해진 불교적 신이 전개된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삼국유사의 본질은 불교신앙의 흥포를 위한 감동과 이적의 증거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SOS천성산" 사이버홍보단

어슬렁 달리기·생태비디오 아트展도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하기 위한 사이버홍보단이 조직됐다.

3천배 기도 25일째를 맞은 6일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와 대불청 부산지구는 천성산 관방반대 어슬렁 달리기와 생태비디오아트, 환경콘서트 등이 열고 시민들에게 천성산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SOS 천성산이 아파요'라는 주제

로 천성산의 생태자료를 보여주는 '비디오 아트'는 30여대의 노트북을 시청 광장 나무 위, 길거리 등에 설치하여 천성산 생태자료 및 영상들을 전시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생태비디오아트와 함께 포크 가수 이진석, 정승년노래음악제 대상을 수상한 이성현, 난타, 싹놀이, 대금산조 등의 환경콘서트가 열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천미희 기자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식

1일 불국사서 봉행

성립당 월산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 다례식이 9월 1일 경주 불국사에서 봉행됐다.

불국사 무설전에서 열린 월산대종사 추모다례식은 불공, 개식, 헌다, 삼배, 육성법문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추모 다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 문도대표

성타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등 문도와 사부대중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스님의 생전 수행정신을 기렸다.

월산스님은 한국불교 선종사의 경허-만공-금오스님의 법맥을 이은 선객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97년 세수 85세 법남 54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박원구 기자

용산 스님 2주기 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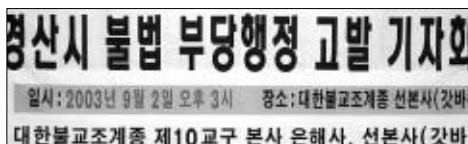
종호 스님 초청 법회 열어

부산 공덕원(주지 효순)은 8월 30일 용산스님 추모 2주기를 맞아 제주도 제석사 주지 종호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공덕원 부산 대구 신도들을 비롯한 신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추모법회에는 추모사와 공덕원 부산 대구 합창단의 추모곡, 범어, 현화, 추모제 순으로 진행됐다.

천미희 기자

스님들, 주차장 불법행위 시정 나섰다



◇9월 2일 갯바위 선분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범타스님(가운데)과 장적스님(왼쪽), 상인스님(오른쪽).

"공공시설물의 목적은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사 주지 범타스님과 선분사 주지 장적스님 등 10여명의 스님들은 9월 2일 갯바위 선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산시 측에 대해 특별 수의계약

된 주차장 관리대행권 해지, 관련공무원 파면, 경산시청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는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산시청을 향한 방화하는 등 무리리 행사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스님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산사에서 운영하는 선분사쪽 갯바위 공영주차장 관리대행권이 배모(43)씨에게 넘어가면서 도로를 막고 통행료 개념의 주차비를 강제 징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모씨는 임청과정 중 불법 담합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다. 박원구 기자

통일기원 편지 전달못해

북측, 방침 내세워 거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 경북대구본부(공동대표 장적스님)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보내기 위해 모은 초등학생들의 편지와 선물이 북한측의 거부로 전달되지 못했다. 북한측은 "특정종교 단체의 편지와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며 통일기원 편지 30여통과 인형 등 선물 20여점을 거부했다. 박원구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수련 후 스님, 법사님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읽고 있습니다.

◎ 명성스님에게 상담을 의뢰한 이창명씨(가명, 40대 초반)는 건축업을 하는 사업가이다. 이씨가 상담을 의뢰한 이유는 사업성취의 결정적 순간만 되면 알 수 없는 인간관계의 구설과 시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동업자가 일을 그르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해 3번이나 사업의 절대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사업이 잘 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스님에게 파동명상 상담을 하게 되었다. 파동명상상태에 들자 이씨는 전생에 자신과 얽혀 있는 많은 사연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현실에서 이씨와의 사업관계의 얽히고

설친 시비와 송사의 상대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외가댁 뒷산 큰 나무에 눈을 뜨고 죽은 처녀영가, 그 영가는 전생에 이씨와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으나 신분의 차이(무당집 딸)로 이씨 집안의 집사(현재는 이씨의 집안의 가까운 친척)와 있음에 의해 강제로 죽임을 당해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영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에 적절한 방편으로 그 영가를 친도하고 난 뒤부터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님의 요청에 의해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음)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명: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명: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명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9월 넷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수련과정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